

SPORTS
SEOUL
CULTURE

서울스포츠 걸

스포츠 웨이브 — 개인의 건강, 국가가 보살핀다
이토록 특별한 한강 — 한강의 섬

2023 03+04 No.382



Contents



서울특별시체육회
3+4월 스포츠 캘린더

● 국제 ● 생활 ● 전문 ● 기타

● 3월 ~ 4월 장소: 종목별 상이(종목단체 홈페이지 참조)
제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 3월 ~ 4월 장소: 삼양월드컵보조경기장
2023 WK리그 서울시청 홈 경기

● 3월 ~ 4월 장소: 종목별 상이(종목단체 홈페이지 참조)
- 2023 서울시장기(배) 종목별 대회
- 2023 서울시협회장기(배) 종목별 대회

● 3월 ~ 4월
- 2023 서울걷길
장소: 자치구별 상이(자치구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 2023 서울권 대학 축구클럽리그
장소: 경기별 상이

● 3월 ~ 4월
2023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장소: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

● 3월 10일(금) ~ 12일(일)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023
장소: 목동실내빙상장

● 3월 19일(일) 장소: 광화문광장
2023 서울마라톤

● 4월 2일(일) ~ 4월 30일(일) / 매주 토·일
2023 가족클라이밍 교실
장소: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 4월 30일(일) ~ 5월 7일(일)
2023 서울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장소: 율림픽테니스경기장

● 4월 21일(금) ~ 4월 23일(일)
제9회 아시아 오픈 라켓볼 대회
장소: 일원스포츠문화센터

● 4월 27일(목) ~ 4월 30일(일)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장소: 경상북도(구미) 일원

● 4월 28일(금) ~ 4월 30일(일)
2023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장소: 용마폭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 4월 23일(일) ~ 4월 29일(토)
2023 스포츠 주간



※ 자세한 내용은 서울체육회 홈페이지(www.seoulsports.or.kr)를
참고해주세요.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편집 시민홍보팀 윤영하, 이해웅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컴포터노벨리㈜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4 스포츠 웨이브

개인의 건강, 국가가 보살핀다
1 '손목닥터 9988' 시민 체험기
2 '우리' 건강을 위해 나선 기업과 지자체
3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서비스

14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섬

24 특집 인터뷰
스포츠 경영 시대, 그 서막을 열다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강태선 회장

28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벤자민,
벤자민이 사랑하는 서울의 달리기

32 School Of Sports, SOS!
신체의 아름다움, 움직임으로 표현해봐!
덕성여자고등학교 전해림 선생님

36 變變 스포츠
야구장에선 로봇 심판

38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긍정의 에너지 가득 채우고 달리는 그녀들
풋살 동호회 MK레이디스

44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
'영원한 농구인'의 시작, 그날을 떠올리며
박찬숙 감독

48 아무튼 스포츠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시 찾아온 영광의 순간
슬램덩크 더 퍼스트

50 숫자-LOG
다시 한번 뜨겁게! 2022 카타르 월드컵

52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56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취임식

58 SSC 뉴스

61 SSAD 뉴스

63 지그재그 날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스포츠사회

개인의 건강, 국가가 보살핀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등 건강 습관 형성에 따른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 및 상품 출시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와 국가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손목닥터 9988’ 시민 체험기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손목닥터 9988’이라는 이름의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자 5만 명을 모집해 7월까지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2023년 2차 서울형 헬스케어는 규모가 18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손목닥터 9988’ 체험 참가자가 들려주는 ‘찐 후기’이다.

손목닥터 9988 신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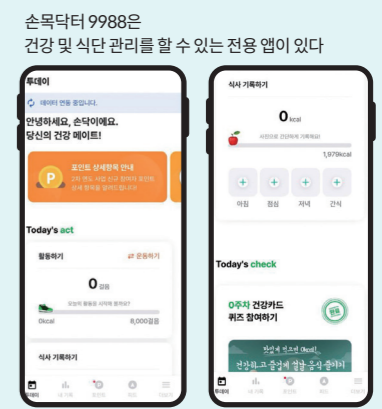
서울시청에서 발간하는 서울시 뉴스 <내 손안에 서울>을 읽다가 손목닥터 9988 기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문장을 발견한 것이다.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필자에게 8,000보는 쉽게 채울 수 있는 걸음이었기에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며 바로 신청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인 ‘손목닥터 9988 2.0’ 앱을 제공한다.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소유자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69세까지의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 및 대학생, 자영업자이다. 손목닥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목닥터 9988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기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내용, 설문 내용, 자격 관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하며, 승인까지는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공지했다. 최종 승인이 되면 배송과 앱 다운로드 날짜가 안내된다. 필자는 신청 후 받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조인핏 연결부터 포인트 모으기까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는 ‘조인핏(JoinFit)’이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앱만 설치해 본인의 스마트워치로 참여 가능하다. 단, 모든 스마트폰 모델을 지원하지 않는다. 앱과 연동되지 않는 스마트폰 모델도 있으니, 가입할 때 소지한 스마트폰 모델로 연동이 가능한지 필수로 확인해야만 한다.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필자처럼 조인핏을 신청하면 된다. 손목닥터 9988 앱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을 때 활동한 건강 데이터를 기록한다. 걸음 수뿐 아니라 수면 패턴, 심박수, 산소포화도와 스트레스 지수도 기록된다. 올해 이 사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건강 관리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을 제휴해 멘탈케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장 먼저 자신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한다. 앱과 조인핏을 연결하면 되는 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조인핏과 함께 온 서비스 가이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인핏으로 하루 도보 수 외에도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 그중 흥미로웠던 기능은 식단 기능이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으면 AI 기능을 통해 어떤 음식인지 인식하고 칼로리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조인핏의 또 다른 장점은 ‘포인트’이다. 앞서 소개한 식단 사진을 하루에 두 번 이상 찍으면 50포인트가 모인다. 필자는 아침, 점심, 간식, 저녁으로 올리고 있다. 또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가 모여서 시작

“ 많은 서울인이 손목닥터 9988 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동아일보DB



한 지 약 2주 만에 6,000포인트 넘게 모았다. 이처럼 건강하게 모은 포인트는 병원과 약국, 안경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함께하고 싶은 건강 습관 형성

손목에 밴드를 차고 다니니 주변에서 호기심 갖는 이들이 많다. 그때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더니 다들 참여하고 싶다는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필자가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신청한 동료가 여럿 있다. 혼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니 걷는 재미도, 포인트 모으는 재미도 두 배다. <서울스포츠>에 실린 이 후기를 통해

많은 서울인이 손목닥터 9988 운동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날씨도 많이 풀렸다.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고, 건강도 쌓고, 포인트도 쌓아보자.



글을 쓴 이예빈은 여느 서울시민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서울시 직장인이다. 평소 여행과 맛집 탐방, 건강에 관심이 많다. 관심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과 나누는 일이 좋아 개인 블로그(blog.naver.com/lyb0110)에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다. 블로그 닉네임이 Yolo1234인 것처럼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다.

‘우리’ 건강을 위해 나선 기업과 지자체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자체, 기업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들의 심신을 회복시키는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각 지자체 및 기업의 일부 건강사업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글을 쓴 김영재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요즘 스포츠 관련 시와 메타버스 콘텐츠 때문에 ‘놀이=창의성=혁신’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찾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융복합 건강환경연구소장도 맡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경쟁적 요소를 부여해 동기를 높이는 모바일 챌린지앱 형태의 운영 사례가 많았다”

지자체 운영 사례 - 걷기 챌린지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경쟁적 요소를 부여해 동기를 높이는 모바일 챌린지앱 형태의 운영 사례가 많았다. 안성시의 “매일걷기 챌린지”는 참여 기간 매일 최대 1만 보를 걷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챌린지 시작 전 자신의 목표 거리를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일 걷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 전남 영암군의 “영암한바퀴 걷기 챌린지”는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5,000보씩 20일간 10만 보 걷기를 목표로 운영되며 목표를 달성한 어르신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앱 정보를 통해 영암 특정 지역(월출산 기찻길 등)을 방문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어 지역 홍보도 동시에 한 사례이다.

시흥시의 “만보시루” 사업은 5,000보부터 1만 보까지 사용자의 목표 걸음 수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시흥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걷기를 테마로 하였지만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 “자전거 마일리지 챌린지”의 경우 시민들이 출퇴근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면 1km 당 5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이는 지역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 및 저탄소 에너지 전략 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사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기업 운영 사례 - 상품 및 프로모션형

기업에서는 건강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는 고객들의 건강과 상품 판매 증가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 기업 사례도 걷기를 통한 마일리지 제공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 이자율을 높여주는 보상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고객 건강과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데일리 워킹 적금”을 출시했다. 데일리 워킹 적금은 만보기를 통해 매일 1만 보 이상 걷는 미션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적금”은 걷는 걸음 수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 하루 30분 2,222보 걷기, 매일 걸음 수 확인 도장 찍기 등 어느 정도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대 금



기업에서도 고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CJ ONE의 “ONE워크”는 일상 속 걷는 즐거움 속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로 1,000 걸음에 CJ ONE 1포인트씩 매일 최대 1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실 기업 상품도 앱 기반형이 대부분이다. 그중 토스 만보기, 캐시워크, 모니모, 챌린저스 앱은 걷기를 기본으로 건강과 연동하여 가입자를 늘리는 전략적 앱이다. 이들 앱은 건강과 관련된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거나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더 건강한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성공적인 지자체와 기업의 건강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의 건강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한 종목과 대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건강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각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복지모금회를 통한 기부 활동은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사례 또한 초기에 ‘걷기’를 통해 전략을 도모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식생활과 수면까지 포함한 삶의 생활 속 전략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앱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들의 앱 의존성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GPS 기반으로 걷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점도 있어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가 나서는 국민건강 서비스

직장인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직장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는 건강관리를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 인식하며 운동참여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MZ세대를 포함한 직장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정책은 주요 핵심 정책 어젠다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인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 맞춤형 서비스 논의 필요

최근 들어 직장인들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개인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확보(출근 전 점심시간, 출근 후)할 수 있게 됐으며, 그들의 개인시간에 운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려는 요구도 점차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직장인은 체육 인프라 미비, 운동 참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30대가 57.5%로 나타나 10대 55.0%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과정 내에 체육 및 신체활동이 포함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30대들의 신체활동에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체육활동을 중단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체육활동 가능 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경험이 있는 체육활동으로 걷기와 등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직장인의 운동 참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직장인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직장인 대상의 맞춤형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년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정책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인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직장인 대상의 맞춤형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강 서비스 사례, '스포츠친화기업'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직장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실시했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스포츠 친화기업 문화 실태 측정 및 조사, 우수기업 선정(또

생)을 통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친화기업 문화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주로 근로자들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는 기업, 그리고 스포츠 친화로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

글을 쓴 임새미는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평소 스포츠를 통한 사회봉사 및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연구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MZ세대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장년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정책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인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

선정해 인증서와 포상, 홍보까지 지원했고, 그 결과, 매년 4곳의 기업을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평가 및 인증해 스포츠 친화문화 조성 우수기업으로 발굴하기도 했다. 그 기준에는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 프로그램 제공, 직장 내 체육시설 여부 등 지표 마련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비록 시범 사업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32개 기업 참여했으며, 2021년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여가친화 기업, 고용노동부의 기업건강증진지수 등의 사업과 같이 근로자의 취미활동이나 안전, 보건 수준에 대한 측정 보다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직장인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등 ‘직장인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 목적을 지녔다.

‘스포츠친화기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착해 직장인이 직장에서 스포츠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친화기업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스타트업의 적극 홍보를 통해 스포츠 인증 기업 신

청 및 인증 수를 늘려야 한다. 더불어 더 많은 인증 기업에 대해 생활체육강사를 파견하고 국민체력100을 통한 체력 측정-운동 처방-실내 체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직장인들의 여가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포츠사회적 기업 모집을 통한 플랫폼 구축

영국의 스포츠 사회적 기업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GLL(Greenwich Leisure Limited)는 30개 이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250개 이상 공공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해당 시설 프로그램 참여를 편리하게 이끌고 있다. 현재 65만 명의 회원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타 지역의 시설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연간 방문객이 4,000만 명에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국의 GLL사업에 착안해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모집하고,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면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자면 사회

적기업에서 개발한 전용 앱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민간스포츠센터 및 클럽, 공공스포츠센터 및 클럽(공급)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전용 앱을 통해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가지 선택은 다음과 같다.

- ① 가능 시간,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인근 민간스포츠센터(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 또는 클럽(축구 등)에 운동 참여 또는 개인 지도
- ② 공원, 유휴체육시설 등에서 운동모임에 1회성 참여 또는 운동모임을 모집해 다른 직장인과 함께 운동(클라이밍, 조깅 등)
- ③ 예약 가능한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에 약후 사용
- ④ 인근 공공체육센터 및 지정스포츠클럽 참여 가능 프로그램이나 클럽 회원 가입을 안내받아 참여

이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양한 운동과 스포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의 신체활동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난 2022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친화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활성화를 가능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직장인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굴

최근 직장인들이 휴가 혹은 여가시간을 통해 활발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키션(Sportscation)’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스포츠키션이란 스포츠(Sports)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운동을 목적으로 떠나는 휴가를 의미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을 위해 휴가 장소를

선택하고 일정을 고려하는 스포츠키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MZ세대들이 골프와 테니스에 열광하는 이유도 공간과 패션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을 하면서도 자연을 즐기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SNS를 통해 공유하는 생활방식은 이미 유행을 넘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건강 관련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개인, 단체),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 등을 발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핑하면 양양

이라는 도시를 떠올리듯, 지자체 수준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스포츠키션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시설을 이용해 스포츠키션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레저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인들이 휴가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비 및 구축한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직장인의 건전한 여가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하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의 섬

서울에는 한강이 품고 있는 섬이 여럿 있다. 섬을 떠올리면 어쩐지
고요하고 적막한데, 한강이 품은 섬들은 서울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언제나 활기차다.
지하철로, 버스로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섬이지만 가까이 있는 만큼 몰랐던
이야기도 가득하다. 보물 같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희귀 동식물,
물새 서식지
서울시 최초
생태경관보전지역
밤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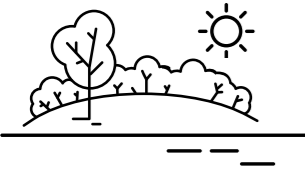
도서관, 자연학습장,
체육시설 등
낭만과 젊음이
있는 섬
독섬

거대한 모래섬에서
서울의 정치·금융
중심지가 된 섬
여의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예술이
함께하는 섬
노들섬

레스토랑, 웨딩홀 등
다양한 시설을
밝혀주는
복합문화공간
세빛섬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가득한 섬
서래섬



한강의 섬 이야기

그랬던 적이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되는 양수리를 마치 내 집인 것처럼 드니다들었고, 백두대간 깊은 곳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를 탐방하기도 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예전의 나는 한강에 폭 빠져 있던 사람이었다. 이 글은 한강에 폭 빠져던 자가 들려주는 ‘한강의 섬’ 이야기다.

한강의 섬을 알기 전, 한강 이야기

본격적인 섬 이야기에 앞서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다’라는 말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젖줄을 ‘어떤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한다. 비유에 걸맞게 한강은 시대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진 광개토태왕 비에는 한강이 ‘아리수’라고 기재돼 있다. ‘아리수’ 귀에 익지 않은가? 현재 서울시의 수도물 명칭 그 아리수가 이 아리수다. 고려시대에는 ‘열수’라고 불렸다. 열수는 크고 긴 강물이 열을 지어 흐른다는 뜻이다. 이처럼 시대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다른 이름을 갖기도 했다. 임진강과 합수돼 서해로 흐르는 한강 하류 일대는 ‘조강’, 경기도 여주 지역은 ‘여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명칭을 가지기도 했다. 뚝섬과 가까운 곳에는 매봉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산이 있다. 그 일대의 한강은 ‘동호(東湖)’라고 불렸다.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해 붙여진 명칭이다. 지금은 이 위로 동호대교가 놓여 옥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해주고 있다. 서강도 있다. 현 마포 지역의 한강을 ‘서강’ 혹은 ‘서호(西湖)’라고 칭했다. 동호대교처럼 서강 일대에는 서강대교가 놓여 있는데 다리 아래에는 유명한 밤섬이 있다.

동호, 서호가 있으면 ‘남호(南湖)’도 있지 않았을까? 예리한 질문이다. 지금의 용산 일대를 ‘남호’ 혹은 ‘용산강’이라고 불렀다. 서강대교와 마찬가지로 용산강 일대에 한강대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 한강대교 아래에 노들섬이 있다.



밤섬은 한강 퇴적물에 의해 나무와 풀이 우거지면서 도심 속의 철새도래지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라진 섬 이야기

한강의 섬 중 지금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전설적인 섬이 있다. 전설적인 섬이라니! 무슨 아틀란티스 제국인가? 하여간 지금은 사라져 버린 그 섬! 바로 저자도(楸子島)이다. ‘닥나무 저(楸)’에서 보듯 종이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가 많아 저자도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이름인 옥수동섬은 섬의 위치와 관련 있다. 옥수동 근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랑천이 한강에 합수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인근에는 뚝섬도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많은 시민이 존재 자체도 모르지만 저자도는 동서 길이가 2km에 면적이 약 1,157m²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다. 현재 노들섬의 동서 길이가 약 700m, 면적이 148,760m² 정도니 노들섬과 비교해보면 저자도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저자도는 선유도처럼 주위 풍광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한다. 조선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아름다운 저자도의 풍광에 반해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의 임금이 반한 저자도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지고 만다.

저자도의 모래를 퍼내서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이다. 현재 서강대교 아래에 있는 밤섬도 1968년에 폭파되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퇴적물이 계속 쌓였고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저자도도 재탄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전설이 완성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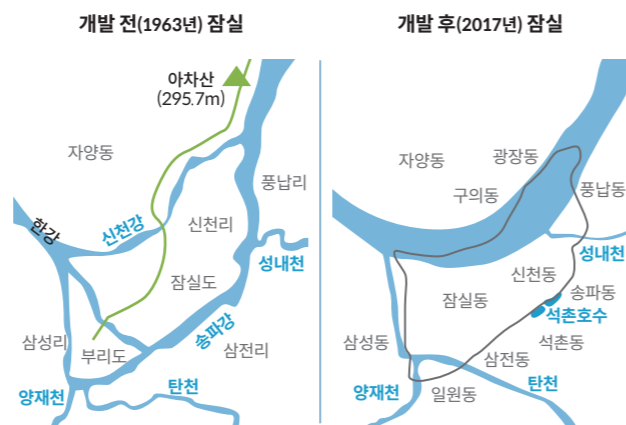
한강에는 섬이었다가 육지가 된 곳도 있다. 뽕나무밭으로 유명했던 잠실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 사람이 믿지 않는다. 지금 어디를 봐서 잠실이 섬인가? 하지만 잠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잠실도(蠶室島)라고 불리던 섬이었다. 더군다나 부리

도(浮里島)라는 작은 섬도 거느리고 있었다. 행정구역도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위치했었다.

강남 지역의 옛 행정구역은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 많았다. 이에 반해 잠실도는 한강 이북이었던 경기도 양주군 혹은 고양군에 속했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났다. 용산 일대까지 물에 잠기는 등 서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때 잠실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건기에는 육지와 붙어 있던 섬의 북쪽에 새로운 물길에 낚고, 우기에만 섬이 됐던 잠실이 계절에 상관없이 섬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섬의 북쪽에 난 물길을 신천강이라고 불렀고 남쪽의 물길은 송파강이라고 칭했다.

1971년, 잠실도는 을축년 때처럼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남쪽 물길이었던 송파강을 메워 잠실을 육지로 만든 것이다. 강의 남쪽과 붙게 되니 잠실은 한순간에 강남 지역이 됐다. 한편 메워진 송파강도 석촌호수로 물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외에도 한강에는 많은 섬이 있다. 마포구 상암동 549번지 일대를 아우르는 난지도는 망원정 부근에서 난지샨강이 행주산성 쪽

개발 전후의 잠실 지형 비교



1971년 부리도의 북쪽 물길을 넓히고, 남쪽 물길을 폐쇄함으로써 섬을 육지화하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현재의 잠실이 됐다

서울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의도는 매년 봄이면 꽃놀이 온 시민들로 가득하다



©동아일보DB



노들섬은 공연장, 갤러리, 책방 등의 복합문화시설공간으로 음악과 미술의 예술섬으로도 불린다



노들서가에서는 강연, 독서모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에서 다시 분류와 합쳐지면서 생긴 섬이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폐쇄됐다. 이후 서울시는 난지도와 주변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일명 월드컵공원으로 불리는 생태공원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등의 테마 공원으로 조성됐으며, 특히 가을에 코스모스와 역사길을 보기 위해 많은 이가 찾는다.

여의도는 잉화도(仍火島), 나의도(羅衣島)로도 불렸다. 이 이름들은 모두 '넓은 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특히 '나의도'에 관한 유래가 흥미로운데 이곳은 근대 이전에 농사에는 쓸모없던 모래섬이었다. 이에 여의도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나나 가질 섬'이란 뜻에서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여의도는 벚꽃놀이, 불꽃축제 등으로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곳이 됐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노들섬

한강에서 사라진 섬도 많지만 이름이 바뀐 섬도 있다. 노들섬이 그중 하나다. 노들섬은 1995년 이전에는 중지도(中之島)라고 불렀다. 연세가 지긋한 분 중 대부분이 노들섬은 몰라도 중지도는 다 안다. 노들섬이 중지도였던 시절, 그때의 노들섬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강수목장이었다. 강수목이란 강물에서 헤엄을 치며 노는 것을 말한다. 2023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장면이다. 한강에서 물장구라니. 하지만 1950~60년대 자료 사진들을 보면 지금의 부산 해운대를 뺄 정도로 물놀이객들의 천국이었다. 노들섬은 처음부터 섬이 아니었다. 강변에 있는 넓은 모래벌판이었다. 모래벌판이 워낙 넓어서 이곳에서 군사훈련도 했다. 또

처형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노들섬 인근에 있는 새남터를 본 적 있는가? 가톨릭 순교성지 중의 하나인 새남터는 조선시대에는 연무장으로 쓰였으며 때로는 국사범 등 중죄인의 처형장으로도 사용됐다. 1801년 중국인 신부가 이곳에서 처형당한 뒤 많은 천주교 신자의 순교지가 됐다. 군사훈련지, 연무장, 처형장으로 쓰였던 노들섬은 한강철교가 들어오고 조금씩 변화를 맞았다. 한강철교가 1900년에 놓인 후 남은 자재들을 모아 한강인도교라 불리는 한강대교가 탄생하게 되니 그때가 1917년이였다. 이때부터 모래벌판은 인공섬의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중지도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이때 붙여진 것이다. 노들섬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한강개발계획에 의해 완전한 섬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주변에 있던 모래벌판이 사라진 대신 그 자리를 강물이 메우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즈음 노들섬의 소유권이 어떤 기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개인으로 넘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게 됐다. 하지만 개인 소유였던 노들섬을 서울시가 2005년에 매입했다. 이후 많은 개발 계획이 타진됐으나 계속 무산되고 말았다. 공지로 남아 있던 섬은 도시 텃밭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노들섬은 예전보다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고 휴식 공간도 많아졌다. 편의성이 높아지니 시민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늘었다. 섬이 다시 북적북적해진 건 지난 2019년 9월 28일부터다. 노들섬이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 기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노들섬의 자랑인 잔디마당을 둘러본 후 향긋한 커피 향을 따라가면 '노들서가'가 나온다. 그곳에서는 종종 라이브 공연도



한강시민공원 서래섬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유채꽃 사이를 거닐며 봄꽃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진행한다. 역시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다시 잔디마당으로 나오면 한강철교 위로 위로 지나가는 기차도 볼 수 있다. 그 철길을 따라가면 앞서 언급한 새남터 성지도 보인다. 이처럼 이곳 노들섬에서는 아름다운 한강의 풍광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한강철교 자체도 역사적인 장소다. 1900년에 완공됐고, 한국전쟁 때인 1950년 6월에 폭파됐기 때문이다. 한강철교가 폭파됐을 때 한강대교도 같이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다. 노들섬은 노을 명소기도 하다. 생각 같아서는 노을까지 보고 싶었으나 서래섬과 세빛섬 탐방을 하기 위해 서둘러 섬을 빠져나왔다. 나오는 길에 달빛노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달빛노들은 섬의 서쪽에 설치된 둥근 원반 형태의 시설물로 그 크기가 무려 약 12m에 달한다. 인공으로 달빛을 비추기 위해 만들었는데 유람선을 타고 갈 때 보면 꽤나 이색적이라고 한다.

인공섬, 서래섬과 세빛섬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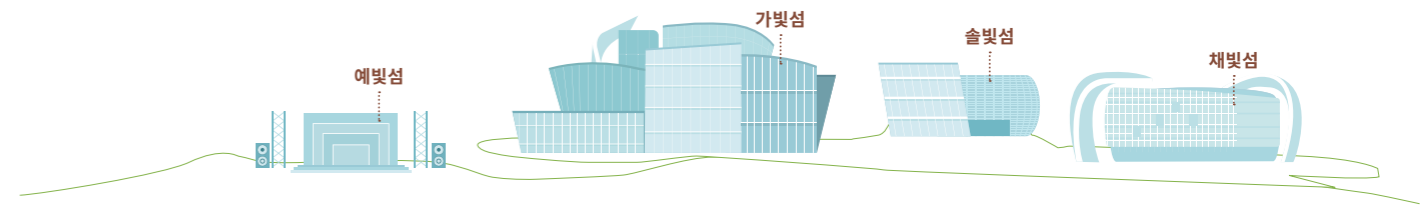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는 ‘서래’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다. 동작역 아래로 반포천이 흐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서리서리 굽이쳐 흐

른다 하여 ‘서래’라고 칭한 것이다. 실제로 반포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 한강을 앞두고 크게 휘돌아나간다. 그 반포천 인근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산다는 서래마을이 있다. 위성사진을 보면 서래섬은 한강변 둑이 바둑판처럼 매끈하게 잘 다듬어졌다. 반대로 반포 쪽은 산(山)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다. 이런 외형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렇다. 서래섬도 인공 섬이다.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경조오부>라는 지도를 보면 지금의 반포에 기도(基島)라는 섬이 보인다. 1960년대까지도 존재했던 기도는 한강종합개발이 시행되면서 그 형태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기도에 있던 돌들로 바둑돌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1986년,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1982-86년)으로 서래섬이 태어났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산을 한 건 아니었다. 한강종합개발이 시행될 즈음에 일부에서는 홍수 예방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서래섬을 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상연 한강개발추진본부장은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섬을 만들기로 했고 실행에 옮겼다.

서래섬은 약 23,140m²정도로 아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인공 섬이지만 정감 있는 모습이다.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



예빛섬, 가빛섬, 솔빛섬, 채빛섬의 4개로 이루어진 세빛섬은 한강의 색다른 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에는 갈대밭이 펼쳐지니 계절마다 보여주는 색감이 달라서 좋다. 그런 배경물들이 없더라도 서래섬은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다른 섬들과는 달리 산책로가 흙길로 되어 있으니, 서래섬에 입도를 하려면 약 50m 정도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참고로 서래섬은 3개의 다리로 진출입을 할 수 있다. 세빛섬의 영어 명칭은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 5월에 탄생했다. 애초 세빛섬은 3개의 빛이 내린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세빛등동섬’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3개의 빛이라면 섬도 3개라는 뜻인가? 정확히는 4개다. 처음에는 예빛섬이라는 대형 스크린이 있는 미디어아트 섬이 2009년에 완공된다. 이후 가빛섬, 솔빛섬, 채빛섬이 2011년에 완공돼 현재의 외형을 갖춘다. 가빛섬은 가장 큰 규모로 국제회나 기업 행사를 진행할 수 있

는 곳이다. 솔빛섬은 고급 식당과 라이브 바(Live Bar)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러다 2014년 ‘세빛등동섬’에서 ‘세빛섬’으로 이름까지 개명하게 된다. 그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헬세가 동등 센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버리고자 ‘등동’을 빼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세빛섬이라고 하는데 딱 세빛섬이라고 꼬집을 수 있는 섬이 없다. 그냥 멍뚱그러 대표 이름으로 ‘세빛섬’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빛섬은 옆에 있는 반포대교나 그 아래 잠수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 조명이 켜진 세빛섬들 뒤로 관악산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노을이 넘어가니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다. ✨

글을 쓴 **곽동운**은 역사 트래킹 마스터는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백화점 문화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에서 <역사트래킹 서울학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언젠가 트래킹을 좋아하는 이들과 ‘역사트래킹 공동체’를 꾸리는 꿈을 갖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섬, 서래섬과 세빛섬을 걷다

서울 한강에는 인공섬이 있다. 반포한강공원에 있는 서래섬과 세빛섬이다.
서래섬에서 세빛섬까지는 자전거로 5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한강의 물결만큼 일렁이는 봄바람 맞으며 서래섬에서부터 세빛섬까지 페달을 밟아본다.



COURSE. 서래섬 유채꽃 축제 → 2.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 3.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도보 10분(650m) 자전거 5분(1.2km)



Spot 1. 유채꽃 축제

서래섬 둘레길은 5월 중 열리는 유채꽃 축제로 노랑 풍경이 가득하다. 둘레길 규모도 작아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다. 이처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한강공원의 주요 광장, 산책로 등에 계절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꽃을 심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서래섬은 반포한강공원과 3개의 짧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하기도 쉽다.



Spot 2.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여의도한강공원과 잠원한강공원으로 연결된 자전거도로는 잠수교를 따라 강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 카페, 편의점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서래섬, 세빛섬 등 한강의 명소를 탐방할 수 있다.

- **타릉이대어** 9호선 신반포역 2번 출구,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8-1번 출구



Spot 3.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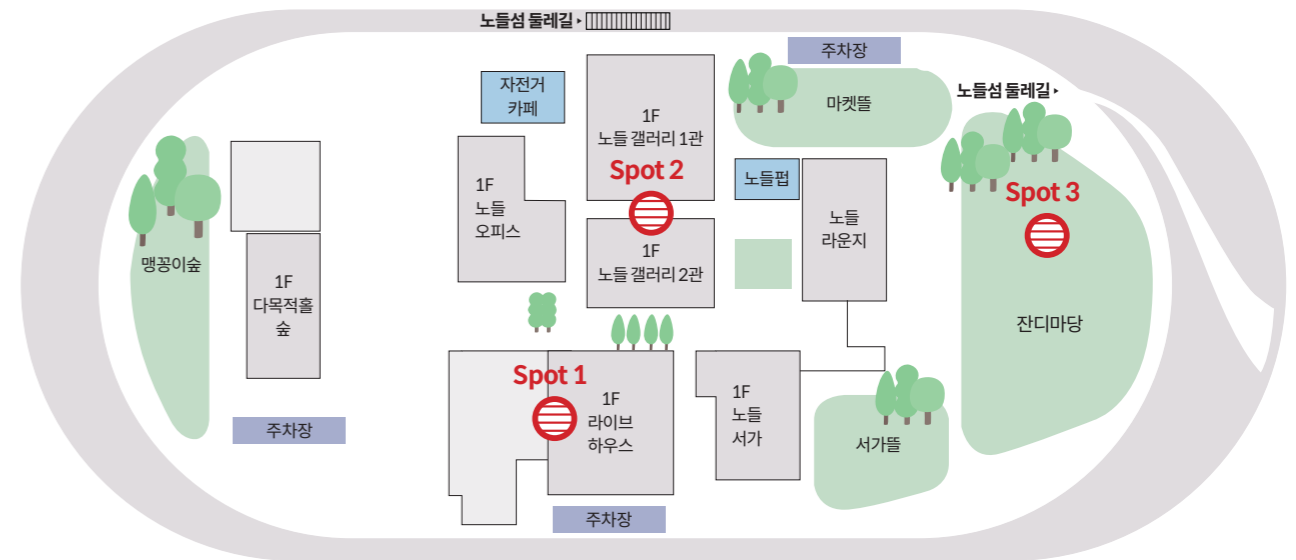
세빛섬을 이루는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운 '달빛무지개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총 길이 114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이 분수는 반포대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흘러나와 분수와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보인다.

- **가동시간** 평일 12:00, 20:00, 20:30, 21:00
휴일에는 17:00, 19:30, 21:30에 추가 가동되며, 15분 동안 가동



예술과 미술이 함께하는 글로벌 예술섬, 노들섬을 걷다

1950년대까지 '중지도'로 불렸던 섬이 2019년 9월, 예술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 노들섬으로 재탄생했다.
노들섬은 새 이름을 갖고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예술적 영감이 되어주는 섬, 노들섬을 한 바퀴 둘러본다.



COURSE. 노들섬 둘레길 걷기: 도보 24분(1.5km)



Spot 1. 라이브하우스

최대 규모의 무대 플랫폼과 음향, 조명, 악기 시설이 갖춰진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최근에는 서울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해 가수 ZICO, 10cm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단독 콘서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위치** 1,2층
- **운영시간** 10:00~23:00(월요일 휴무)
*공연 및 대관 시에만 개방



Spot 2. 노들갤러리

1관과 2관으로 이뤄진 노들갤러리는 노들섬의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는 갤러리로 성장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한다. 노들섬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영감을 주는 감각적인 문화 예술 공간이다.

- **위치** 1층
- **운영시간** 10:00~20:00(월요일 휴무)
*전시 일정에 따라 변동



Spot 3. 잔디마당

한강의 낭만과 문화가 공존하는 노들섬의 야외공간이다. 밝은 한낮부터 저녁에 지는 노을의 낭만까지 하늘과 가장 넓게 맞닿은 자연의 공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봄, 가을이면 각종 야외 페스티벌이 열린다.

- **위치** 노들섬 야외
- **운영시간** 대관 외 상시 개방

스포츠 경영 시대, 그 서막을 열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민선 2기 강태선 회장

서울특별시체육회의 4년이 기대된다. 서울시산악연맹 회장 및 부회장 등 탄탄한 체육계 이력은 물론 아웃도어 브랜드 BYN 블랙야크를 창업해 연간 1조 원 가치의 스포츠 기업을 일궈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인 강태선 회장의 자신감 넘치고 야심 찬 포부를 듣고부터다.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새로운 수장, 민선 2기 강태선 회장과 앞으로의 4년을 그려보았다.



스포츠 행정가로서 서울특별시체육회 감사와 부회장으로 10년, 산악연맹에서 50여 년간 활동하셨습니다.

이번 민선 2기 시대에 서울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인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으로 현장에 돌아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체육 전성시대를 위해 고군분투한 민선 1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서 맞이하게 됐는데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지요(웃음). 현장에서 회장으로서 서울체육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와 함께하는 모든 분이 혼연일체가 돼 미래를 향해 밝게 나아가야 한다는 자세가 정립돼야 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체육회 경영, 종목단체 지원, 자치구 체육회 활성화, 학교체육 정상화, 서울시 스포츠 인프라 플랫폼 구축 등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정 확보를 통한 안정적 체육회 경영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이지만 이제 '민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정적인 재정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스포츠도 경영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체육회는 이제 '돈 쓰는' 행정이 아닌 '돈 버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예술은 곧 관중의 관심과 힘으로 성장합니다. 관중은 즐겁고 흥미로운 것에 마음을 두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건강 증진만을 위한 체육이 아니라 건강에 즐거움을 더한 체육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흥이 넘치는 체육은 관중, 즉 시민뿐만 아니라 체육 행정도 건강하게 합니다.



구상하고 계신 재정 확보 방안이 있나요?

가장 먼저 체육회에 '마케팅팀 신설'을 하려 합니다. 체육회 안에서 마케팅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인에 의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중 시민의 안전과도 연관되는 사례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서울시 체육 시설 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체육 시설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산악연맹에서 서울에 있는 인공암장을 관리하지만 과거에는 체육 관련 전문가가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체육 전문가들이 종사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지자체 내 체육 시설들을 관리한다면 마케팅적 측면은 물론 시설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단한 밑거름을 쌓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선진국의 체육 시설을 견학하고, 학습할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행사는 물론 국제 행사도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로 경제적 효과도 이룩하며
선진 스포츠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체육 전문 지식인들의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도 지키고,
수익 창출도 이루는 상생의 구조가 인상 깊습니다.**

인공암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땐 상주 직원 외 전문 인을 채용해 이중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면 이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많은 성공 신화를 이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계에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은 기업 경영
노하우가 있다면요?**

체육회의 경영과 기업의 경영은 구조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업무를 하지?”가 아니고 “저 업무까지 해내 야지” 하는 진취적인 태도입니다. 해야 하므로 일을 하는 직원 과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즐겁게 해내는 직원의 업무 효율은 크게 차이 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과 직장이 아닌 사명감으로 임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임기 동안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하면서 스스로 재미있고 흥이 난다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입사한 첫날부터 함께하지 못했 기 때문에 한 명 한 명과 면담 시간도 가지며 직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4년간의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구상하셨을 텐데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째, 행사의 안전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많은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사가 안전 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종목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 다. 셋째, 2036 서울올림픽 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36 서울 올림픽 유치는 어쩌면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스포츠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면 산 업은 자연스레 활성화됩니다. 산업이 활성화되면 엘리트 선수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는 유명선수 배출의 기회를 얻으며 스포 츠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의 선순환입니다. 2036년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서울시 스포츠 산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도약에 나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꿈꾸는 체육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특별시체육회로 인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가 된 서울을 그려보려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단단한 밑거름을 쌓기 위 해 직원들이 직접 스포츠 선진국의 체육 시설을 견학하고, 학 습할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내 행사는 물론 국제 행사도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할 때입 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로 경제적 효과도 이룩하며 선 진 스포츠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서울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최고의 복지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1등 시민이 돼야 합니다. 100세 시대, 온 국민이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공 공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 다. 모두의 시설을 나의 것처럼 이용해주시다면 학교체육 시 설 등 많은 공공재를 개방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만큼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1등 시민이 됩시다.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스포츠 참가와 서울의 애정하는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BENJAMIN



SEOUL

BENJAMIN SEOUL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벤자민, 벤자민이 사랑하는 서울의 달리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벤자민의 한국 생활은 2017년에 시작했다. 회사 업무 차 출장으로 서울에 온 지도 6년 차이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벤자민은 운동하며 만난 서울의 풍경에 푹 빠져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놓치 않는다고 한다. 벤자민이 자신이 애정하는 서울 달리기 명소를 알려준다.



SOUTH AFRICA

안녕하세요! 한국에 산 지 6년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벤자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즐겼고, 러닝은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운동은 잘하는 것보다 즐겁게, 건강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서울 생활을 시작한 외국인분들과 운동을 결심한 모든 분께 저의 달리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달리기 코스를 소개해주세요.

집과 반포한강공원이 가까워서 반포한강공원을 시작으로 잠수교를 넘어 한남동까지 뛰어요. 한강이 집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저 말고 다른 러너(Runner)들도 많아서 땀힘이 더 나요. 또, 이 코스는 몸 상태에 따라 6km~15km 코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반포한강공원 외에 달리기 코스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이요. 성수동 거리부터 서울숲 둘레길까지 코스로 달려요. 서울숲 둘레길에 들어설 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게 정말 좋아요. 도시 야경을 보면서 시작했다면 서울숲에서는 자연을 보면서 뛰어요. 남산도 추천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힘든 코스이지만, 달리면서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제 봄이니 벚꽃 보러 가야겠어요.

달리기 외에 다른 운동도 하나요?

저는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말고도 자전거, 수영, 등산, 트레일 러닝 등 많은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서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달리기할 때, 자전거를 탈 때 보는 세상은 평소 일상에서 보던 세상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중 특히 자전거 타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로드 자전거라고 부르는데, 남산타워, 경복궁 등 서울의 유명 랜드마크가 있는 곳들을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다녔어요.

운동 코스 외에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아차산이에요. 아침에 여유로울 때는 종종 아차산도 올라요. 일출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죠. 서울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달리기 좋은 곳이 참 많아요. 반포한강공원, 서울숲, 아차산 등 저의 러닝 코스에서 같이 달려요,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벤자민, 달리기에 빠지기까지의 이야기

‘달리기’에 폭 빠져 손기정평화마라톤, 서울마라톤 등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벤자민의 하루는 온통 운동으로 가득하다. 지금, 벤자민이 낯선 한국에서 달리기엔 몰두하게 된 계기부터 목표까지 직접 전한다.

힘든 도전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히

일반 사람들은 달리기하는 이유를 보통 다이어트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다. 내가 달리기나 운동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이다. 달리기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6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때만큼 힘들거나 외롭지 않다. 모두 달리기 덕분이다. 달리기는 나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리고, 뛰면서 새로운 한국 친구들 많이 생겼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사라지고, 한국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는 것은 달리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2019년, 인생 첫 마라톤에 참가하게 됐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춘천마라톤이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첫 풀코스 마라톤 완주였다. 춘천마라톤에 참가하기 전에 나는 마라톤은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주하고 나니 정말 재밌었다. 완주하자마자 다시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솟아났다.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2020년 서울마라톤을 바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이벤트가 취소됐다. 서울마라톤도 마찬가지였다. 마라톤대회는 없었지만, 달리기는 멈출 수 없었다. 계속 뛰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못 만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3년 동안 달리기와 운동에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다. 코로나19가 잦아든 요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대회도 다시 운영해서 너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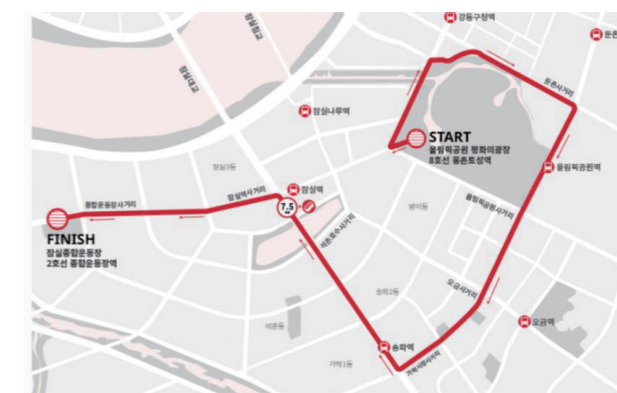
2022 손기정평화마라톤은 FULL 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풀 마라톤 준비를 위한 생활 루틴 잡기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운동 시간은 만들면 된다. 그래서 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한다. 워라밸을 지키고 싶다면 일하는 동안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내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평일에는 모든 날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운동하고, 퇴근 후 저녁에도 달린다. 보통 일주일에 평균 3, 4번 정도 꾸준히 달린다.

출근 전에는 운동장에 있는 러닝 트랙에서 훈련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러닝 모임 ‘Social Running Crew(@src_seoul)’와 함께 뛰고, 주말에는 ‘Long Slow Distance’라는 장거리 훈련까지 한다. 천천히 오래 뛰는 훈련 방법으로 평균 페이스보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천천히 달리면서 거리를 늘려간다. 모두 합치면 일주일에 약 30~40km 정도의 거리를 달린다. 31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20km다.

벤자민이 참가한 2023 서울마라톤 10K 코스



출발: 올림픽공원 ▶ 도착: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마라톤은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는 것을 잘 안다. 마라톤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달리는 것처럼 달리기 루틴(Routine)을 초반에 잡는 것이 효율적이다. 트랙 훈련과 장거리 훈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화요일마다 하는 러닝 모임처럼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뛰는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들이 곁에 있다면 더 좋다. 마라톤 경험자로서 마라톤에 처음 도전하는 분에게 추천하고 싶다. 혼자만 뛰지 말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커뮤니티 찾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내가 그랬다.

내가 세운 올해 목표들

사실 운동이란 관련된 목표가 너무 많다. 그중 이번 2023 서울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세운 목표를 살짝 알려준다면, 바로 개인 최고 경신과 함께 3시간 30분 안에 완주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다. 건강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나처럼 마라톤을 사랑하는 모든 분을 응원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레이스 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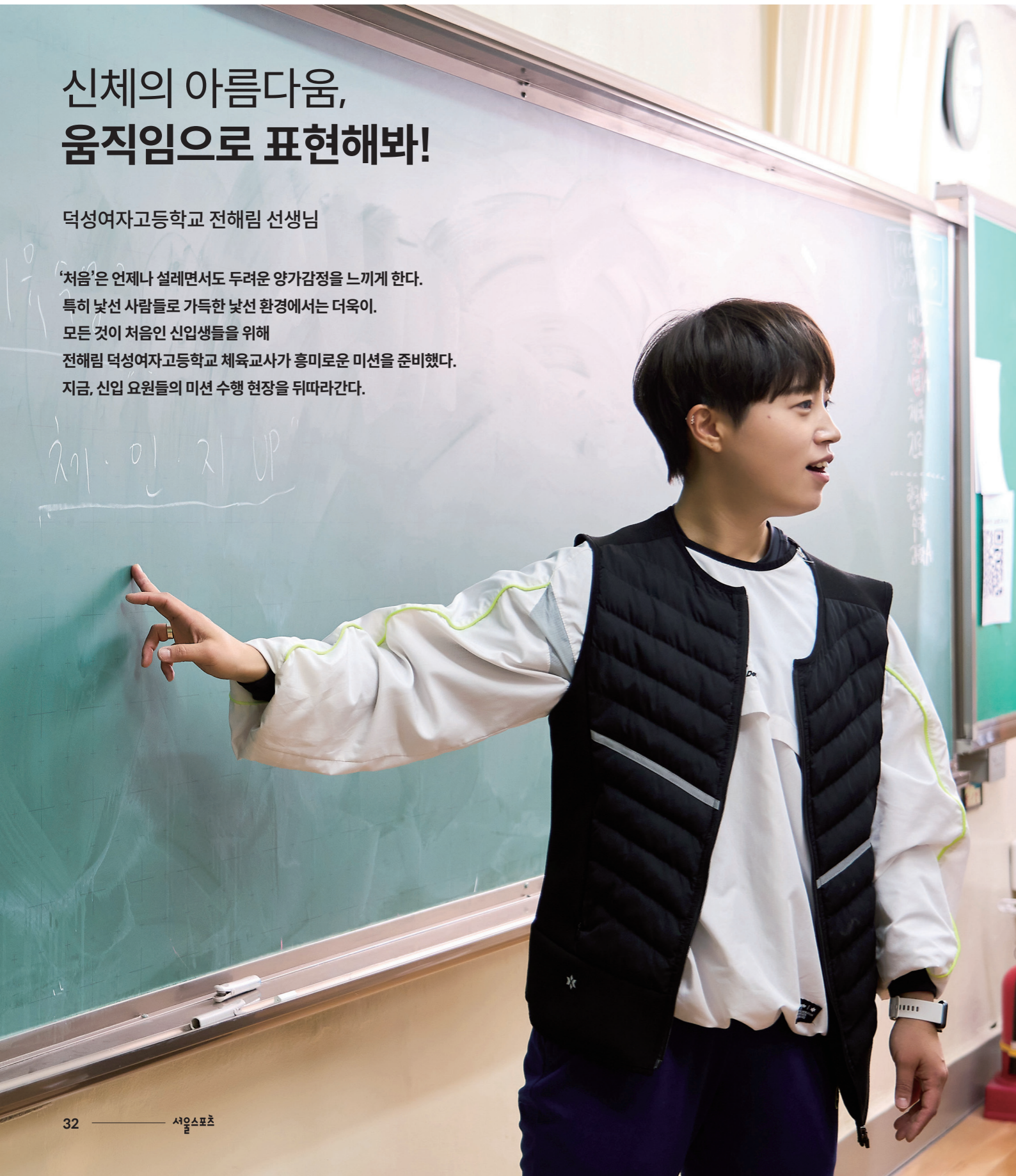
글을 쓴 Benjamin Kufal은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현재 유통 및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중 마라톤에 빠져 취미생활이 됐다. 올해의 두 가지 큰 목표는 서울마라톤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는 것과 ‘아이언맨’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것이다.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여자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신체의 아름다움, 움직임으로 표현해봐!

덕성여자고등학교 전해림 선생님

‘처음’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양가감정을 느끼게 한다.
특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이.
모든 것이 처음인 신입생들을 위해
전해림 덕성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흥미로운 미션을 준비했다.
지금, 신입 요원들의 미션 수행 현장을 뒤따라간다.



여섯 가지 움직임 요소를 활용한 표현활동

복도에 노래가 퍼지자 저마다 쉬는 시간을 즐기던 학생들이 제 자리에 앉는다. 전해림 교사가 교실 앞 모니터에 수업 주제를 띄우며 수업 시작을 알렸다. 설렘과 낯섬으로 인한 두려움이 채가지지 않은 3월 둘째 주, 덕성여자고등학교(이하 덕성여고) 1학년 4반 교실이다. 이날 수업은 총 7차시로 구성된 ‘신체의 아름다움, 움직임으로 표현해봐!’의 첫 시간이었다.

표현활동 수업으로, 연습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과 실전 미션 수행 ‘순간포착 챌린지’,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주제표현’으로 나뉜다. 체육 시간이라고 하면 흔히들 공을 차거나 매트 위를 구르는 장면을 상상하기에 표현활동에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전해림 교사는 본격적인 실기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실에서 20분간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체육 시간에 하는 ‘표현활동’이란 무엇일까? 전해림 교사는 표현 활동을 다음 여섯 가지 움직임 요소로 설명했다.

- ① 신체 ② 공간 ③ 시간 ④ 힘 ⑤ 흐름 ⑥ 관계

몸을 움직이고 쓰는 것 자체가 체육활동이다. 신체를 움직이고,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는 것, 힘을 쓰고 흐름을 타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학생들이 여전히 아리송한 표정을 짓자 전해림 교사가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내린 작은

미션이다. 그리고 다음 지령이 떨어졌다. “팔을 움직여서 옆 사람에게 웨이브를 전하세요.” 가장 앞에 앉은 학생을 필두로 끝에 앉은 학생까지 웨이브가 전해졌다. “1학년 4반 교실에서 팔을 활용해 힘의 강도, 소요 시간의 길이, 흐름을 활용해 친구들과 파도를 만들었어요.” 이를 ‘라면 면발’이라고도 표현한 전해림 교사는 앞으로 남은 ‘신체의 아름다움, 움직임으로 표현해봐!’ 수업은 방금 만든 웨이브, 라면 면발처럼 신체 움직임을 활용해 주제를 표현하는 수업이라고 말했다.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몸으로 표현하기

라면 면발은 연습 중에서도 연습이었다. 전해림 교사는 학생들이 표현활동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느 한 전시를 패러디해 수업을 구성했다. 그가 차용한 전시는 사진가 조던 매터(Jordan Matter)의 사진 프로젝트로 지하철역, 횡단보도, 도서관 등 일상을 보내는 주위 공간에서 무용수들이 춤추는 순간을 포착해 담은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이라는 전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몇 가지 사진에서 무용수들은 자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일상을 표현했다. 덕성여고 1학년 4반 학생들이 조를 이뤄 완료할 미션이기도 하다. 이 미션은 아직 학교가 낯설 신입생들이 미션 수행 구역으로 지정된 운동장, 체육관, 농구장 등을 다니며 학교 구조를 익히는 데 도움도 됐다. 더불어 한 조에 5~6명이 모여 결과물을 내는 구성이기에 새 학년, 새 학기에 반 친구들과 가까워질 기회도 됐다.



“ 설렘과 낯섦으로 인한 두려움이 채 가지지 않은 3월 둘째 주, 수업으로 학생들은 조금 더 가까워졌을 테다 ”

전해림 교사가 미션 시작을 알리자 조를 이룬 학생들은 빠르게 교실 밖으로 나갔다. 미션 수행 구역을 찾아 사진을 번갈아 보며 동작을 구상하고 구도를 잡는 모습이 한껏 들떴다.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마음도 급하다. 교실에서는 어색했지만, 미션 완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니 어색함은 온데간데없다. 벤치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고, 축구 골대 그물망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 같이 철봉에 손을 올려 움츠러들었던 신체를 쭉 늘이기도 한다. 입학하고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농구장과 철봉이었다고 말하는 1학년 4반 학생들은 새 친구들과 함께 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로움의 설렘을 경험한다. 여기에는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이라는 표현활동이 더해진다.

Mission Complete! 다음 미션을 향하여

11시까지 모든 조원이 교실로 복귀해야만 미션 성공이다. 3분여를 남기고 부랴부랴 교실로 향하는 1학년 4반 학생들. 오픈 채팅방에 조 이름과 조원들 이름, 사진들을 모두 보내야만 ‘진짜’ 미션 완료다.

1조부터 5조까지, 다섯 개 조가 제출한 사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 수업 때 전해림 교사가 제시한 샘플 사진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찍은 사진에서는 그들만의 창의력이 돋보였다. 사진 속 학생들은 허리를 꺾거나 다리를 찢고, 팔을 활짝 벌리는 등 신체를 다양하게 활용해 일상의 한순간을 표현했다. “Mission Complete!” 전해림 교사가 외쳤다.

모든 조가 미션을 온전히 수행해냈다. 다음 체육 시간에는 조별로 실전 미션에 들어가게 된다. 이른바 ‘순간포착 챌린지’. 오늘 진행한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의 ‘리얼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도에 2교시 마침을 알리는 노래가 퍼졌다. 전해림 교사가 수업을 마무리했다. 설렘과 낯섦으로 인한 두려움이 채 가지지 않은 3월 둘째 주, 덕성여고 1학년 4반 교실이었다. 이날 표현 활동 수업으로 학생들은 조금 더 가까워졌을 테다. ‘나’와 ‘너’도, ‘나’와 학교도, ‘나’와 체육도. ✨

★ 1학년 4반 체육 미션 결과 제출 ★



전해림 교사

조원들과 신체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나요?



학생 1

네! 1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앉아 있는 시민들을 표현했어요. 공중부양해서 앉은 자세의 포즈를 취한 것이 포인트예요.



1조

학생 2

2조는 상반신을 힘껏 뒤로 젖혀서 비바람에 날아가는 우산을 붙잡고 있는 장면을 표현해봤어요. 3조는 공중부양을 선 자세로 연출했어요. 실제로 공중부양을 한 것은 아니고, 사진 기술을 이용했지만요.



2조



3조



학생 3

4조의 공중부양이 가장 ‘칼각’인 것 같아요! 5조는 전신을 활용해 ‘—(일)’자를 표현했어요, 선생님!



4조



5조

變變(변변)스포츠는 '변화하는 스포츠, 진화하는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스포츠 비하인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야구장에선 로봇 심판

우린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각광 받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만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로봇이 튀기는 치킨,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도 일상이 돼가고 있다. 스포츠도 피할 수 없다.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던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도 이제 사라질 수 있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호크아이 시스템을, 축구 종목에서는 골라인 통과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글에서는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로봇 심판'에 대해 알아본다.

경기장에 나타난 로봇 심판

야구 경기에서 오심과 관련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과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야구 심판들은 규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구팬들이 오심을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또한 과거의 야구 경기 기록 영상은 선명도가 높지 않았으며 기록물의 사회 전파가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심에 대한 반발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야구 경기의 모든 행위는 고성능 카메라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고 있으며 기록된 영상물은 방송 매체를 통해 사회로 빠르게 전파된다. 따라서 야구팬들은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근거를 통해 오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다. 또한 오늘날 야구 애호가들은 야구 규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오심을 상세히 포착하기도 한다. 이에 팬들은 오심의 불공정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야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오심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불공정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점화시키고 있으며 팬들이 스포츠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자극을 가한다. 필자가 스포츠 경기 심판 관련 연구를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했을 때 면담자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오심이 많다 보면 야구 경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는데다가 허무하기까지 하고요. ‘이걸 봐서 뭐 하나, 어차피 오심인데’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면 더 이상 경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야구 경기에서 반복되는 오심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야구팬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팬들은 오심을 주로 하는 심판에 대해서 불신감을 드러내고 승부 조작 등을 의심한다. 셋째, 오심 증가는 야구의 인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야구 종목에 한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 경기가 마찬가지이다.

로봇 심판은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보완해 정확한 판정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로봇 심판은 장시간 동안 일정한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하는 일관성이 있어서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로봇 심판의 기록성은 판정의 시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로봇 심판은 순간적인 이미지 포착에 유리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어려움 없이 수행하며, 판정 상황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야구 경기는 심판의 편향성과 일관된 판정 부재로 공정성이 훼손돼 팬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로봇 심판의 도입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 첫째, 미래의 야구 경기는 심리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로봇 심판을 통해 공정한 판정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 둘째, 로봇 심판의 스트라이크 및 볼 판정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다.
- 셋째, 스포츠의 건전한 이미지가 사회로 확산할 것이다.

한편 로봇 심판을 야구 경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해킹, 기상 악화에 따른 로봇 심판 운영, 판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한다. 이는 야구 종목에 등장한 로봇 심판의 문제만은 아니다.

스포츠에서의 로봇과 인간의 공존

야구 로봇 심판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수 존재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주된 불만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경기에 로봇 심판을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 심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는 '인간적인 미'가 사라져 흥미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재 야구 로봇 심판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인간 심판의 자리를 로봇 심판이 모두 차지하기보다 공존한다면 부정적인 견해도 줄지 않을까. 각자의 역할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로봇 심판은 스트라이크 판정에 적용하고, 인간 심판은 경기 운영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식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경기가 그려지지 않는가?

즉,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확한 판정을 해야 하는 심판의 체력적 한계를 로봇 심판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심판은 야구 경기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야구팬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야구 경기의 시청을 통해서 세련된 스포츠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글을 쓴 박형길은 스포츠 생체역학으로 석사를, 스포츠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ACCURAY사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CyberKnife(암치료로봇시스템)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스포츠 야구 조직 및 스포츠 특허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에 '이물질 유입 방지 <야구> 유니폼'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긍정의 에너지 가득 채우고

금요일 밤의 천마풋살파크는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풋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뚝뚝 땀 흘리는 이들이 초록 잔디 구장을 발 빠르게 누빈다. 서로에게 건네는 응원은 쌀쌀한 3월 초의 밤에도 땀을 흘리게 한다. 성인 여성 풋살팀, MK레이디스다.

달리는 그녀들

풋살 동호회 MK레이디스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안나 • 안녕하세요. MK레이디스 주장 최안나입니다. 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 팀에서 잔소리꾼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연 • 반갑습니다. 저는 최안나 주장과 함께 MK레이디스를 이끌고 있는 부주장 지혜연입니다. 주장이 선수들에게 잔소리로 '채찍'을 준다면 저는 부주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실어주는 '당근'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다희 • MK레이디스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다희입니다. 저는 팀의 웃음 버튼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부족해 구장에서 많이 넘어져서 의도치 않게 웃음 버튼이 됐습니다.

당근과 채찍, 웃음 버튼이 활동하는 MK레이디스팀은 언제 시작됐나요?

최안나 • 2020년 5월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송파구여성축구단 활동도 같이하는데 훈련 시간이 평일 오전 10시인지라 직장 다니면서 참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던 중 MK풋볼클럽 코치를 통해 유소년클럽팀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성인 여성 풋살팀도 같이 창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다희 • MK풋볼클럽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로 구성된 풋살 전문 아카데미예요. MK레이디스도 초창기에는 아카데미였어요. 레슨비를 지불하고 수업받는 형식으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동호회팀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2년도부터 본격적인 동호회가 됐습니다.

지혜연 • 특히 초창기에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멤버가 구성됐어요. 마음도 잘 맞고, 풋살의 매력에 심하게 빠지면서 회원들끼리 뚝뚝 뭉쳐보자는 의지도 강해졌던 게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창단했네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최안나 • 당시 5월에는 실내에 관한 방역 수칙이 엄격했어요. 풋살은 야외에서 뛰는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죠. 창단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모임 인원을 조정해야만 했어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정도가 강화하기 시작하면서요.

지혜연 • 심지어 야외 구장도 잠시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방역 수칙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모임을 유지했어요. 무엇보다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대회가 없다 보니 동기부여를 갖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죠.

MK레이디스팀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혜연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정기 모임을 가져요. 1시간은 훈련하고, 1시간은 경기를 치룹니다.

최안나 • 정기 모임 장소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풋살장은 팀당 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6~8시와 8~10시에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6시



에 퇴근하기 때문에 8시에 활동하고 있어요. 또 다음 날 출근 부담을 덜기 위해 금요일에 진행해요. 주말 전이라서 확실히 더 개운한 마음으로 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김다희 • 정기 모임 외 활동도 있어요. 게스트를 초대해 구장에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다른 팀과 매치 경기도 치룹니다. 매치 경기의 경우 다른 팀에서 MK레이디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DM으로 먼저 제안을 주시기도 해요. 구장이 송파구에 있다 보니 근처 지역 팀들과 주로 경기를 뛰지만 연락 주시면 다른 지역 팀과도 매치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천광역시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최안나 • 선수 출신인 MK 코치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 모임 때마다 잘 가르쳐주셔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모임을 통해 실력을 쌓고, 쌓은 실력은 대회에 출전해 뽐내는 거죠.

풋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풋살만의 매력이 있나요?

최안나 • 축구할 때 제 포지션은 수비수예요. 그래서 골을 넣을 때 직접적인 관여도가 크지 않죠. 또 축구는 상대적으로 경기 시간 내내 숨이 찰 만큼 뛰지 않아요.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반면 풋살은 축구에 비해 경기장 규모가 작고, 오가는 플레이가 빠르다 보니 모든 선수가 모든 플레이에 관여해요.

지혜연 • 밴드에 비유하고 싶어요. 최안나 주장이 말했듯 경기 치르는 모든 때에 팀원 전체가 관여하다 보니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해요. 어느 한 파트가 빠졌다면 하모니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풋살도 마찬가지예요. 팀워크가 잘 맞는 경기를 치르고 나서 느끼는 그 희열감이 중독된 것 같아요.

김다희 • 마찬가지로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시절, 특별활동으로 풋살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시작이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 풋살 동아리가 많지 않았어요. MK레이디스에서 활동하기 전엔 남자 풋살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정도였어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그 차이가 굉장하더라고요. MK레이디스에서 활동하면서 그뻐 몰랐던 팀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민리그 풋살리그 여자 일반부에서 우승하셨죠.

지혜연 • 네. 아주 값진 경험이었어요. 대회 경험을 쌓으면서 MK레이디스 활동을 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출전하지 못했던 한을 모두 풀었죠.

최안나 • 서울시민리그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네요. 경기엔 선수 5명이 출전해야 하는데, 당시엔 지금 인원의 규모가 아니기도 했고 선수들 체력도 고려해야 했기에 정원을 채우는 데 꽤 애먹었어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잠시 동호회 활동을 접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고시생에게 급하게 SOS를 쳤죠. 모집하느라 전화를 엄청 들렀던 기억이 나네요.

김다희 • 올해도 서울시민리그에 출전할 예정이에요. 늘 그렇듯 다가오는 대회의 목표도 우승, 또 우승입니다. 회원이 늘었으니 작년처럼 인원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에게 MK레이디스란 어떤 존재인가요?

김다희 • 이곳에 있으면 중·고등학생 때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공 던지며 놀던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학창 시절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로요. 매주 정기 모임을 통해 만나다 보니 친구들과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됐어요.

지혜연 • 스트레스 해소예요. 금요일 저녁, 이곳에 와서 풋살을 하면 평일 직장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모두 풀려요. 꾸준히 나와서 루틴으로 잡히다 보니 이곳에 오지 않으면 평일이 온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 않기도 하고요.

최안나 • 재테크예요.(웃음) 저희가 입상 경험이 적지는 않아요. 우승하게 되면 상금이 주어지는데 MK레이디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상금이 큰 역할을 해요. 또 체력 증진의 의미로도 재테크와도 같아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듯 마치 제 건강을 더 가꾼다는 의미에서요.

마지막으로 풋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께 풋살 선배로서 한 말씀해주세요.

최안나 • 일단 도전하세요! 무엇이든 경험이 중요해요.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거창한 말보다는 일단 경험해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혜연 • 맞아요. 특히 ‘여자기기 때문에’ 그동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MK레이디스에는 도전하시는 분이 많아요. 40대 후반부터 60세 가까우신 분도 함께하고 있어요.

김다희 • MK레이디스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활동해요. 우리는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못 하는 게 당연해요. 위축되지 않도록 서로 응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결국 주장, 부주장과 같은 맥락인데 ‘시작’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
아주 값진 경험이었어요.
대회 경험을 쌓으면서
MK레이디스 활동을
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

서울특별시체육회가 1953년 2월 20일에 설립돼 올해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한 해를 기념하기 위해 '스포츠 레전드'를 기획했다. 서울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온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을 도약해본다. 그 과정엔 서울을 스포츠특별시로 이끌어 온 각 종목의 레전드 선수들이 들려 주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가 있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걸어온 70년의 길

- 1954. 3. 16.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부로서 활동
- 1953.~1961. 총 24개 가맹경기단체 조직
- 1953. 3. 8. 3·1절 경축체육대회 개최
- 1953. 2. 20. 서울특별시체육회 설립



- 1976. 11. 5. 제1회 구 대항 종합체육대회
- 1976. 1. 31. <체육 서울> 발간
- 1972~1973. 시장기 쟁탈 직업소년 체육대회 개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 1969.~1972. 시장기 쟁탈 초등학교 종합체육대회 개최
- 1964.~1972. 서울시 직장인체육대회, 시민하이킹대회, 시민캠핑회, 가족등반대회 등 개최
- 1962.~1971.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개최
- 1961. 7. 29. 본회 가맹경기단체 중앙경기단체로 통합



- 1982.~1985. 총 21건의 해외 친선 교환 경기 진행
- 1980. 2. 20. 본회 규약 개정으로 경기단체 가맹(29개 단체)



- 1990. 11. 20.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창립 (22개구 및 6개 종목)



- 2015. 9. 24. 시도체육단체 통합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정관 배포
- 2015. 10~1. 서울시체육단체 통합 준비회의(2회)
- 2015. 12.~2016. 2.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회의(5회)
- 2015. 12. 30.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 계획 발표
- 2016. 2. 19. 서울시체육회 해산 의결
- 2016. 2. 26. 서울시생활체육회 해산 의결
- 2016. 2. 26.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통합
- 2016. 3. 25.~2016. 12. 24개 자치구체육회 및 77개 회원종목단체 통합 완료



- 2009. 7. 14.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
- 2007. 3.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소재 서울시체육회관 입주
- 2001. 9. 13.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정



- 2019. 10. 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우승
- 2020. 1. 15. 민선 1기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 (제34대 회장 박원하)
- 2021. 6. 3. 서울특별시체육회 법인 등기
- 2023. 2. 23.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 (제35대 회장 강태선)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체육 70년을 빛낸 스포츠 레전드들의 역사 속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1973년 제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농구선수로 출전했던 박찬숙 감독이 서울시대표단 기수로 행진하고 있다

‘영원한 농구인’의 시작, 그날을 떠올리며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박찬숙 감독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농구 곁을 떠나지 않는 ‘영원한 농구인’이 있다.

‘최연소 국가대표’부터 ‘최초 주부 선수’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까지 수많은 수식어를 보유한 박찬숙 전 농구 선수. 1970년대, 1980년대를 대한민국 여자 농구 전성기로 물들인 그와의 만남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다.

소년, 소녀들이 한바탕 무리 지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대표처럼 보이는 한 소녀가 맨 앞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 깃발을 들고 있다. 두 손으로 깃대를 볼끈 쥐고, 입가에는 열은 미소도 잃지 않는다. 15살의 박찬숙이다.

아주 귀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중학생 때 맞으시죠? 세상에!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때가 엇그제인 것처럼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1973년 6월1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제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서울시 선수들이 대전에 도착해 행진할 때 찍힌 사진이에요. 농구 종목뿐 아니라 축구, 배구, 육상 등 많은 서울시 대표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단독 기수로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런 자리였는데, 사실 아주 부끄러웠어요. 사진에서는 웃고 있는데 아마 저 순간에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기수니까 서울시 대표 선수들 중 제일 앞에서 행진하는데 던진 돌맹이를 몇 번 맞았어요. 알고 보니 뒤에서 같이 행진하던 남자 동료 선수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몇 년 지나서 그 선수들이 이야기해줬어요. 어린 나이에 앞에서 큰 깃발을 들고 가는 기수가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저는 기수를 희망해서 한 건 아니고, 키가 커서 선발된 건데 하고 싶어 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샘도 낫을 테죠.(웃음)

이듬해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서울시 대표 선수로 선서도 하셨어요. 1974년 제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출전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 앞에서 개최 도시인 서울시 대표 선수로 선서문을 낭독했죠. 1972년부터 시작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축소판이기도 해요. 운동하는 소년들이라면 모두 출전을 꿈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회에 속했어요. 그런 대회에서 어린 나이에 서울시를 대표해 기수도 하고, 선서문도 낭독했다는 건 정말 흔한 기회는 아니죠.

긍정적인 힘을 받았는지 1974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송의여자중학교 농구부 주전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길이길이 잊지 못할 역사적 순간으로 남아 있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어린 박찬숙이 한국 여자 농구 유망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한국 여자 농구 유망주의 꿈은 처음부터 농구 선수가 아니었다. 친구들과 머리카락 땅아주는 걸 좋아해 헤어디자이너를 꿈꿨던 박찬숙에게는 농구의 ‘농’자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농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농구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전에는 경험이 없으니 농구란 건 아예 생각도 안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체육 선생님 눈에 띄죠.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설득하셨고,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떨결에 농구장을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시작이겠네요.

농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영원한 농구인’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나요? 전혀요. 처음 농구 골대를 봤던 때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골대가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엄청 높았어요. 농구공도 꽤 커서 놀랐어요. ‘저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큰 공을 어떻게 넣지?’ 하는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죠. 겁을 잔뜩 먹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찬숙아, 너무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도 너무 잘했어. 조금만 더 해보자”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계속 칭찬하시니 용기를 많이 얻었고, 선생님과 훈련할수록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농구를 놓지 않았어요.

“1974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송의여자중학교 농구부 주전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길이길이 잊지 못할 순간이죠”



“
 무엇이든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선수들이 올 한 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바라요
 ”

송의여자중·고등학교에서 활약하던 박찬숙은 1975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국가대표로 첫
 출전한 콜롬비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는 세계
 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구 선수를 선정한다는 ‘미스 월드
 바스켓’에도 이름을 올렸다. 실력은 물론 미모까지 갖춘
 한국 여자 농구 스포츠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197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
 요. 유망주에서 ‘농구 여제’로 거듭나셨고요. 껍이 낫
 어요. 분명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무섭기도 했고요. 바
 로 위 선배님 하고는 거의 10년 이상이 차이 났으니까
 요. 그때 유일한 나이 일기쓰기였는데,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매일 울면서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딱 사
 춘기를 겪을 나이더라고요.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어요. 나중에는 대한민국 여자 농구를 확
 실하게 짊어지는 주축이 됐고요. 세계선수권대회는
 한 번 출전하기도 어려운 대회인데 저는 3회를 출전
 했어요. LA 올림픽 등 세계 대회에서 은메달도 목에
 걸었죠.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면서 ‘박찬숙’이 많이
 성장했어요.

스포츠 대스타로 활약하시다가 1985년,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껍 몸도 좋지 않았고, 어린 나이부
 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생활이 계속 이어지
 다 보니 힘든 순간이 왔어요. 결혼하면 농구를 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결혼을 했죠. 하
 지만 비농구인으로서의 삶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
 위에서 프리포즈가 많이 와서 농구 해설도 하고, 대
 만 백금 보석팀에서 4년간 플레이코치로 지냈어요.
 국내에 복귀해서도 코치로 있었고, 박찬숙농구교실
 도 운영했어요. ‘농구인’으로 돌아온 셈이죠.

‘최초 주부 선수’로 친정팀인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
 에서 또 한 번 활약한다. 이후에는 ‘첫 여성 지도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태평양화학과 영광여자중학교에서 코치
 로 지내고 대한농구협회 이사, 한국여자농구연맹 여자
 농구 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꾸준히 농구 결을 지켰다.

2023년, 오래 간직했던 꿈을 이루셨다고 들었어요. 껍 이
 번 3월에 창단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에 초대 감
 독으로 선임됐어요. 농구 인생을 살면서 감독이라
 는 역할을 통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컸어요. 이성현 서대문구청장님 덕분에 꿈을 이
 뒀어요. 항상 지도자가 돼야겠다는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준비해왔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물론 힘들다고 생
 각하면 힘들죠.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고생이고요.
 하지만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요. 이 자체가 저
 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감독 박찬숙으로서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껍 스포츠
 는 승패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가
 바라는 1등 아닐까요? 1등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선수들이 현장을 체험하
 고 적응하는 기간으로 두고자 해요. 무엇이든 경험
 이 가장 중요해요. 선수들이 올 한 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도약을 준비할 수 있
 는 시즌이 되기를 바라요.

창립 7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껍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체육 70년 역사에 저 박
 찬숙이 있다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73년, 1974년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한 전국소년
 체육대회가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때의 발판이 없
 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싶어요. 서울
 특별시체육회에서 앞으로도 유망주들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해내주시길 바라요.

인터뷰를 마친 그는 농구 코트로 돌아갔다. 까마득히
 어린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무엇 하나라
 도 더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를 꿈꿨던 송의여
 자중학교 박찬숙 학생은 지금 다시 새로운 꿈을 꾀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선수단 감독으로서. 껍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시 찾아온 영광의 순간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영화판으로 개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열기는 예상 못했다. 단순히 복고 아이템 정도겠거니 했던 필자의 생각을 뒤집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누적 관객 수는 350만을 넘었고, 31권짜리 만화책이 중쇄를 거듭하며, 곳곳에 오픈한 팝업스토어에서는 관련 굿즈와 농구용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영광의 순간이 다시 찾아온 셈이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

슬램덩크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전문가가 손꼽은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다. 슬램덩크에 열광했던 이들은 지금 40, 50대 중년이다. 슬램덩크는 곧 50대인 필자가 고등학교와 대학 초반까지 봤던 만화니 30대 초중반은 모를 수도 있다. 본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교 농구팀 이야기니만큼 초등학생이었던 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40, 50대가 슬램덩크를 한창 읽던 1990년대 초반, 농구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 대학팀과 프로팀이 함께 참여했던 농구대잔치는 K-pop 스타들의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열광의 도가니였고 문경은, 우지원, 이상민 등 연세대학교 농구팀 선수들의 인기는 BTS 못지않았다. 농구 열풍은 1994년에 방영한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인기로 이어졌다. 당시 동네 농구장에서는 매일 농구 경기가 벌어졌다. 키도 작고 운동신경도 신통치 않았던 필자도 에어 조던 가방을 메고 농구공을 튀기며 동네 농구대를 배회했을 정도였다. 그런 나날을 보냈던 소년들이 중년이 됐다. 여러모로 위기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중년을 생산성 대침체의 시기라 명명했는데 이 연령대가 신체적·사회적·생산성의 절정과 쇠퇴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도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부모는 늙어가고 자녀는 커 가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과거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과거라고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사람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아닌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진 사람일수록 지난날들을 아름답게 기억한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되니까. 슬램덩크는 중년들에게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가장 젊고, 아름답고, 풋풋했던 때의 기억을.

콘텐츠의 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슬램덩크 열풍을 단순히 복고 열풍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슬램덩크를 보러 영화관을 찾고, 수십 권짜리 만화책을 사고, 팝업스토어에서 각종 굿즈를 사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슬램덩크 열풍, 그 두 번째 이유는 콘텐츠의 힘이다. 좋은 콘텐츠는 시대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우정, 풋풋한 첫사랑, 방황하는 청춘, 농구에 대한 열정, 개성은 강하지만 제멋대로인 팀원들이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까지... 슬램덩크는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21세기 청년들도 30년 전의 청년들과 같은 이유로 슬램덩크에 빠져들었고, 농구에 크게 관심 없던 여성들도 영화관을 찾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슬램덩크가 가진 콘텐츠의 힘일 것이다. 명불허전 애니메이션 대국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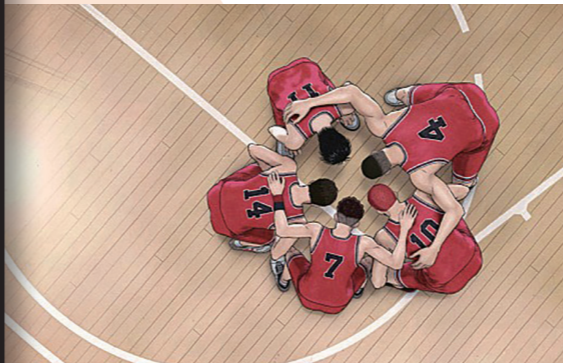
본의 섬세한 작화와 연출, 관심 없는 사람도 사고 싶게 만드는 굿즈의 디자인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특히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관련 상품들과 더불어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이나 콘텐츠에서 다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는 한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현시점에서 관심 깊게 바라보아야 할 현상이 분명하다.

세대 간의 시너지 효과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시너지 효과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다. 슬램덩크 열풍에는 아빠와 아들이 손잡고 영화관에 가고, 엄마가 사랑했던(?) 만화 주인공을 딸이 사랑하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들이다. 필자 역시 허구한 날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만 보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 또한 아들의 서태지를 향한 팬심을 이해할 생각 같은 건 없으셨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한국은 그 때문에 세대 간의 문화 차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조선 시대와 일제강점기, 전쟁과 냉전, 산업화와 정보화, 세계화와 4차 산업시대가 뒤섞여 있다. 자식들은 부모 세대의 문화를 촌스럽고 고루하다고 여겼고, 부모는 자식들의 문화를 유치하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한국의 지난 세월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세대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가뜰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져 가는 와중에 가족 간에 대화가 될 만한 주제가 없으니 세대 간 갈등도 점점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슬램덩크의 열풍은 한국의 세대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엿보게 한다. ✨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는 슬램덩크 만화가 인기10 안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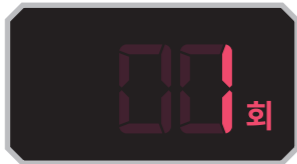


글을 쓴 한민은 문화심리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작가 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등의 저서가 있으며 유튜브 '5분심리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숫자로 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중동, 첫 겨울 월드컵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만큼 볼거리가 풍성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 리빙 레전드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선물한 지난 겨울의 대회를 숫자로 정리했다.



리오넬 메시의 월드컵 우승 횟수.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무대에 데뷔한 메시는 5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공표한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에 입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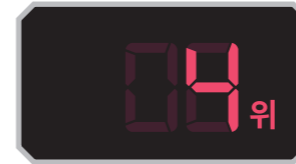
가나와 조별 리그 H조 2차전에서 벤투호 공격수 **조규성이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멀티골을 넣었다.** 후반 13분과 16분 연속해서 헤더로 골망을 갈랐다. 조규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대회 전 2만 명대에서 3월 초 기준, 277만 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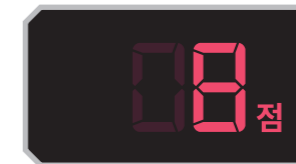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64경기에서 172골이 터져 나왔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2.64골) 때보다 소폭 늘어난 역대 최다 골로 2.69는 **이번 대회 경기당 평균 득점**이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3개 팀이 역대 최초로 동시에 16강**을 밟았다. 안타깝게도 16강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 준결승에 오른 '이번의 팀' 모로코의 최종 순위. 아시아 못지않게 아프리카 팀들의 돌풍도 거셌다. 비유럽·남미권 국가가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이후 모로코가 최초다.



프랑스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의 득점 수. 음바페는 결승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총 8골을 터뜨리며 7골을 넣은 메시를 제치고 생애 첫 골든부트(득점왕)를 수상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호나우두(8골) 이후 단일 대회 최다골이다.



우리나라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월드컵 본선에 10회 연속 진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뿐이다.



기존 팀당 선수는 23명. 코로나19의 여파로 처음으로 겨울에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팀당 선수를 26명씩** 뽑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르헨티나-프랑스 결승전 관중 수. 참고로 루사일스타디움의 관중 수용 규모는 8만 명이다.



한화로 약 574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아르헨티나가 가져간 월드컵 우승 상금** (달러)이다. ⚡



볼거리 가득했던 겨울 스포츠 별들의 축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유난히 추웠던 2023년 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라도 하듯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경기·강원·울산 일원에서 개최돼 총 8개 종목(정식 5·시범3) 선수 및 임원 4,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을 향한 열전을 펼쳤습니다.

22-23시즌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서울시청 컬링팀과 쇼트트랙 심석희,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우승을 차지한 세화여자고등학교 이해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직전 대회와 달리 동계 스포츠 스타들의 대거 출전으로 종목별 경기장은 선수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눈을 홀리는 환상적인 경기력의 향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 및 임원 774명을 파견한 서울특별시 선수단은 8개 종목에서 총 929점(금63·은46·동47)을 획득해 직전 대회보다 57.5점 상승해 경기도에 이은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청 심석희 선수가 쇼트트랙 경기에서 경쟁 선수들과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심석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500m와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서울시청 여자 컬링팀 이은채 선수가 스톤을 밀리버리고 있다



IHQ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승훈 선수는 이번 대회 5,000m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체육대학교 권이준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를 펼치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30km 계주 경기에서 한국체육대학교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날 경기에서 2:07:51.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목동중학교 권민솔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싱글A조에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고 있다.
권민솔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198.20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화여자고등학교 이해인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싱글A조 경기에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고 있다



목문중학교 이재원 선수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경기에서 활강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팀이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경기(경희대학교)를 11대1로 대파하고 이번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는 경영이다!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강태선 회장 취임식 개최



지난 3월 9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2기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본회 회원단체 임·직원 등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강태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문가의 노하우를 체육 행정에 적용해 새로운 스포츠 경영의 롤 모델을 창출할 것”임을 강조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 2023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 산업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체육회가 앞장서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태선 신임 회장은 BYN블랙야크그룹 회장으로 과거, 본회 부회장과 감사, 서울시산악연맹 회장을 역임했으며, 작년 12월 “스포츠도 경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강태선 신임 회장은 오는 2027년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 약 4년간 본회의 수장으로서 서울체육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취임 축하인사를 건네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강태선 제35대 서울특별시체육회 신임 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회기를 이양 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희월 여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9일(목)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2기 서울특별시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결과, 임원 선임 결과가 보고됐는데, 본회 민선 2기 임원은 지난 달 2023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선임(안)에 의해 부회장 8명, 이사 35명, 감사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 사항으로 사무처장 임면 동의(안), 각종 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안) 등 5가지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정규혁 선임 사무처장 임면에 대한 동의가 의결되었습니다. 정규혁 선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까지 수년간 대학의 스포츠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해 온 경력을 살려 ‘스포츠 경영’을 통한 서울체육 제2의 도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규혁 선임 사무처장(좌)

2023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3일(목) 본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민선 2기(제35대) 신임 회장인 강태선 회장의 첫 공식 일정이자 임기 시작일로, 앞으로 약 4년간 서울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대의원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회자의 성원 보고 후 의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 말씀에 이어 전차 회의 결과, 임원 사임 및 퇴임, 2022년 정기 자체 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으며 심의 사항으로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회원 종목 단체 등급 조정(안), 정관 개정(안) 등 6개 심의 사항 안건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제69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스포츠가치 부문 수상

지난 2월 28일(화)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제69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일정은 2022년 대한민국 체육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한 행사로서 경기·지도·심판·생활체육·학교체육 등 8개 부문에서 109명, 7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본회는 단체 수상으로 스포츠가치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본회는 2020년 인권보호팀을 신설, 서울시 자체적인 체육인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기관 업무 지원 등 스포츠 인권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 청소년 스키캠프 개최

지난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3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2023년 청소년 스키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스키캠프는 초등학생 4~5학년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스키 강습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는데 참가 학생으로 하여금 이번 겨울을 보내고 다음 겨울을 기약하는 건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박지원 선수 '크리스탈 글러브' 수상

지난 2월 13일(월) 22-23시즌 마지막 월드컵 대회인 네덜란드 도르드레흐 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서울시청 박지원 선수가 1,0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랭킹 포인트 200점을 추가해 총 1,068점으로 22-23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ISU(국제빙상경기연맹)는 쇼트트랙 월드컵 창설 25주년을 맞아 이번 시즌부터 시즌 종합 우승자에게 '크리스탈 글러브'를 수상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청 박지원 선수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가대표 박지원'으로서의 복귀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초청간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화),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청 여자골볼팀, 정영아 탁구 선수, 서순석 휠체어컬링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주인공으로 그 다채로운 면면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선수들의 기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정지영 골볼팀 감독, 박재형 탁구팀 감독, 백종철 휠체어컬링팀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에도 물리학 박사의 꿈을 이뤄낸 '한국의 호킹' 민경현 씨와 그 꿈을 가능하게 도와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를 딛고 한계를 극복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장애인, 또 서울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그리고 요즘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서울시청 펜싱팀 윤지수·전하영 선수, IFE 사브르 월드컵 은메달 획득

지난 3월 6일(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22-23 IFE 사브르 월드컵 여자 단체전에서 서울시청 윤지수, 전하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전통 강호인 불가리아를 8강에서 만나 45대41로, 준결승에서 독일에 45대25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세계 랭킹 1위인 프랑스에 결승에서 29대45로 패배하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윤지수, 전하영 선수가 속한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지난해부터 22-23시즌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은메달까지 획득하며 3개 대회 연속 국제대회 입상을 이뤄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연패 달성

지난 2월 10일(금)부터 13일(월)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서울특별시가 총 48개(금23·은19·동6)의 메달을 획득, 총점 30,743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5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탈환한 서울은 올해 1위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동·하계 체전 신인상을 휩쓴 김윤지 선수는 여자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압도적인 레이스로 4관왕에 오르며 MVP의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한국 장애인스노보드의 희망'으로 관심을 모은 관심을 모은 이제혁 선수도 남자 스노보드크로스 와 대회전에서 2개의 메달을 따내며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서울선수단의 활약은 종합 시상에서도 빛났습니다. 크로스컨트리스키의 이승복 감독은 지도자상, 남자 바이애슬론 안진섭 선수는 신인선수상, 남자 빙상 이진호 선수는 최우수 동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선수단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했던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2연패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문체육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지난 1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강원 홍천에 있는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전문체육 사업설명회 및 가맹단체·전임지도자 워크숍'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일정은 전문체육팀 담당자들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전임 지도자들을 위한 멘탈 코칭법 교육 및 스포츠 인권 교육(강사: 한국스포츠심리개발원 박서령 연구개발팀장)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충식 스키협회 회장, 김윤숙 골프협회 회장 등 가맹단체 임직원들도 더 나은 전문체육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고만규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가맹단체 회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20번째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창립

지난 2월 16일(목),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가 제3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번째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도봉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설립 승인으로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클럽 운영, 장애인선수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장애인체육 발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고만규 수석 부회장은 "도봉구장애인체육회 공식 출범을 축하드리며 더 많은 지역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20개 구지회 설립·승인을 완료했으며 5개 자치구(관악, 동작, 서초, 용산, 중구) 설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 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한 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가 지난 2월 2일(목),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생활체육팀 담당자들은 장애 유형 및 연령, 운동 능력 수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실 및 동호인클럽 사업', 종목 중심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동호인대회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강을 누비는 '어울림래프팅대회 사업', 일반 시민이 재능 기부자가 되어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체육취약계층 재능나눔사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임직원, 복지관 및 체육단체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Zigzag Quiz

지크·재크 낱말 퀴즈

3+4월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서울스포츠> 3+4월호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퀴즈판에 3+4월호 정답이 숨어있습니다.

Q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차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손목 위의 건강 박사 #99세까지 88하게 #스포츠 웨이브

손	인	부	터	헬	스	케	어
목	목	생	터	츠	생	7	인
발	구	닥	은	일	허	은	포
목	목	명	터	6	7	9	9
튼	츠	이	이	9	0	플	비
튼	목	의	사	포	9	부	8
하	츠	야	택	9	도	8	터
게	6	홍	투	8	8	청	8



참여방법

이벤트는 서울스포츠 웹진(news.seoulsports.or.kr)에서 4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일 경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웹진 QR코드

답을 맞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5월 중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지난호 정답

- STEP 1. ① 경복궁 향원정
- STEP 2. ② 4년
- STEP 3. ③ 호크아이
- STEP 4. 2005 동아시아축구대회
- STEP 5. 원더티처

지난호 정답자

- 김정* 최현*
- 권혁* 유윤*
- 강영* 최보*
- 김주* 임지*
- 이동* 최명*



가족 클라이밍 교실

운영 기간

2023. 4. 2.(일) ~ 5. 28.(일) / 매주 토, 일(총 16회)

※ 5.13(토) 제외

운영 시간

오전 09:00 ~ 11:00(2시간)

※ 일일체험 강습(1시간), 어드벤처 체험(1시간)

장 소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대 상

8세 이상 서울시민 가족

※ 일반/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아빠와 자녀 차수로 구분운영

참가비

1인당 1만원

※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 면제

참가 접수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